

적도의 나라 말레이시아를 다녀와서

(Livestock Asia 2005 - 말레이시아 축산 양계 박람회 참관 기행)

시원시즈 과장 허운정

계절은 기온이 한여름 날이서 저마다 한여름을 권 보냈다고 색동옷을 입는데 우리는 계절을 거꾸로 다시 성하의 나라로 해외 출장이라는 기대와 흥분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가는 또다른 세상에 대한 동경과 호기심으로 가득하기에 충분하였다.

우리는 지난 9월 27일 "Livestock Asia 2005 - 말레이시아 축산 양계 박람회"를 위해 말레이시아로 해외 출장기에 올라다 인천공항에서 오후 6시 30분 때 항공 KAL기종 타고 6시간 25분후 한국보다 1시간 늦은 밤 11시 25분 말레이시아 무암라공공의 Sepang공항에 도착했다. 날씨는 이국땅 Sepang공항에서 입국수속을 담당하는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와는 달리 정말 무표정한 인상에 우리가 여행인이라는 자식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공항에서 쿠알라룸푸르 시내까지는 대략 1시간 정도 걸리는데, 밖은 어둡고 약간했지만 잘 쫓고 고속도로를 달려 밤동이 빡빡 페트로나스 타워를 지나 쿠알라룸푸르의 화려한 도심속 이국땅에서의 첫날밤을 성대임과 기대감으로 보냈다.

도착 다음날 아침은 호텔 뷔페식으로 먹고 쿠알라룸푸르의 Malayan city에 있는 MIECC 국제전시장으로 이동하여 "말레이시아 축산 양계 박람회"를 관람했다.

"Livestock Asia 2005 - 말레이시아 축산 양계 박람회"는 말레이시아 동물약품 자원부가 주최하고 말레이시아 정부의 지원으로 매년 열리고 있으며, 2001년 최초 개최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축산 박람회의 중요한 이벤트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다며 관계자들의 자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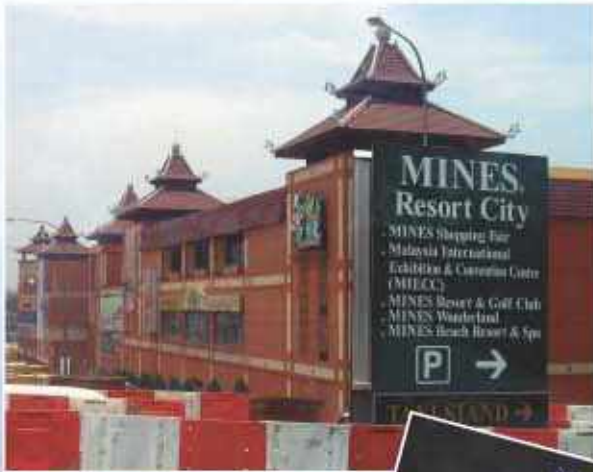
이 높았으나, 우리나라에 비해 개관하는 동양권 일부와 비교할 때 참가 업체 및 규모, 홍보 활동, 전시관 선척 등에서 뒤떨어진 요소들이 많아서 직공이 실망감도 들었다.

이번 박람회에는 말레이시아, 미국, 싱가포르, 중국, 이탈리아 등을 비롯하여 총 230여 업체가 참가하여 전시장 2층에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중 한국은 2개 업체의 부스만이 설치되어 있을 뿐대서 못

참가업체 유형은 축산업 기자재 및 장비, 환경, 위생음식 관련 동물약품, 사료관련 업치 육가공 기자재 및 관련 장비 등 축산업 최신정보들이 출품과 되어 있었지만, 말레이시아의 종교적(어슬람교) 특성상 박람회의 초점이 거의 모두 양계가 집중되어 있는 점도 특이하면서도 어

말레이시아는 적도 바로 북단인 북위 7도의 동남아시아 중심부에 위치해 천혜의 자연 경관과 원유를 비롯한 천연자원이 풍부한 열대의 낙원지대. 국토 면적은 328,758km²인반도의 약 1.5배이며, 인구는 2,500만명 정도, 기후는 고온다습하며, 평균기온이 27°C(81°F)로 우리나라 초여름 날씨와 비슷하다. 말레이시아는 인허유주제로 중앙과 총리가 있고, 인종은 정치권을 장악하고 있는 말레이족(22%)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제 경제계의 절대적 다수으로 강력한 파워를 자랑하고 있는 화교의 중국계(27%)와, 인도계(9%)로 구성되어 있고, 국가는 이슬람교이지만 불교와 힌두교가 공존하고 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로 말미암은 복합적 문화는 말레이시아의 독특한 문화적 배경을 이루고 있어, 단일민족과 단



말레이시아 휴산·양계 박람회 개최된
MECC 국제전시장.



참관객의 발길을 모았던 사시 코너.

일언어를 사용하는 우리로서
는 신선함과 기묘함으로 조
금은 낯설은 문화적 충격을
느꼈다.

박람회 참관을 마치고 오
후에는 포르투갈 식민지 시대의 유적도시
인 말라카로 이동했다. 13세기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
던 말라카는 포르투갈(1511), 네덜란드(1641), 영국(1815)
에 여러기까지 여러나라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2차 세계
대전 후 민족주의 운동이 재기되어 1957년 8월 31일 말
라야 연방으로 독립하였다. 말라카에는 양상한 벽돌 형
채만 남은 세인트 폴 성당과 네덜란드 함선이 침략 당시
의 처참함을 과거속으로 잊은채 지금은 제법 관광지의
면모를 부추기고 있었다.

우리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 식민지 시절을 겪었
던 암울한 과거를 돌이켜 문패 동질성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 말레이시아는 선진국의 식민지를 통하여 언어,
경제, 행정, 자원개발이라는 국가의 초석을 다진 반면,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배속에 자원과 노동력 착취와 민족
문화 말살만을 남겼다는 것이 씁쓸한 감회로 마음이 슈
연해졌다.

출장 마지막날 우리는 Sepang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야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말레이시아 신행정 수도인
PUTRAJAYA(푸트라자야-왕자의 도시)로 향했다.
PUTRAJAYA는 총리공관 및 정부청사, 이슬람사원 등
공공건물들이 강변에 자리잡고 있었고 정부청사들은 화



말레이시아의 최고 건축물인
쌍둥이 빌딩의 야경



말레이시아의 종교책(이슬람교) 특성상 박람회의 초점미
기의 모두 양계에 치중되어 있었던 박람회

려한 조명과 어울려 공공건물의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예술작품 같은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자랑하고 있어 우리
나라 관공서의 사무적이고 경직된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느낌을 받았다.

국민적 관심이 많은 우리나라의 신행정 수도 건설과
비슷한 맥락에서 많은 관심이 가져졌고, 우리도 언제쯤
이런 멋진 신행정 수도를 만들 수 있을까하는 기대감도
갖게 하였다.

비록 4박 5일의 짧은 해외 출장이었지만 한 나라의 국
가 경제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
국가 경제력이 외국에서 느껴지는 체감은 더 크다는 것
을 새삼 느꼈으며, 우리가 오늘 축산물등급판정소를 위
해 우리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
각하게 했고, 잠시나마 망각하고 있었던 마음을 일깨우
는 계기가 되었다.

여행은 늘 사람들에게 행복의 기대와 자기자신을 돌아
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다.